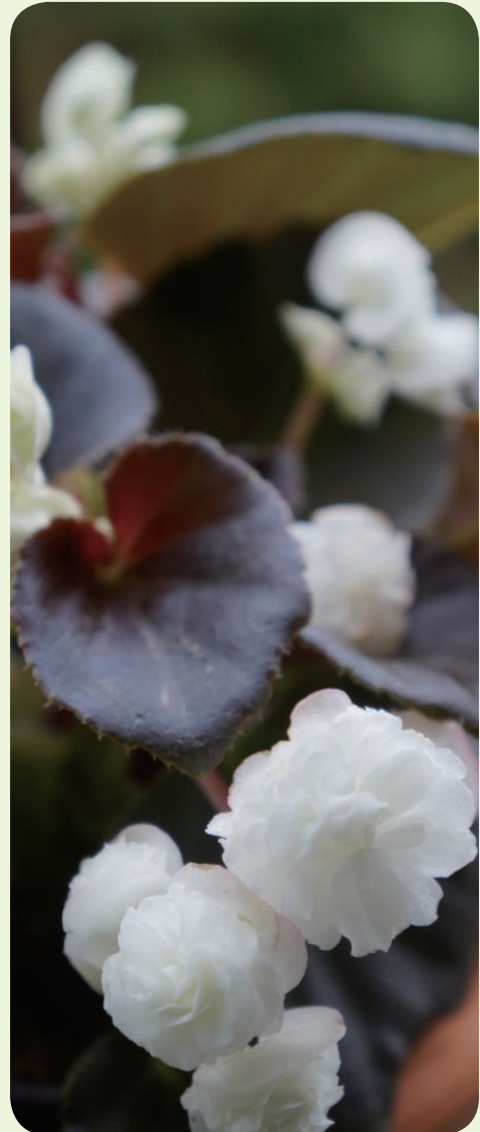




## 각양각색의 매력을 보유한 베고니아 키우기

글+사진 송현희(『반려식물 인테리어』 저자)



제비꽃목에 속하는 베고니아(*Begonia* spp.)는 열대 및 아열대 지방이 원산지인 식물로, 약 2,000종 이상의 많은 종류가 있다. 종류에 따라서 초본 및 반관목본성의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주로 다육성질로 수분을 많이 갖고 있는 식물이다. 베고니아는 원종 자체 외에도 워낙 많은 품종이 육성되어 분류가 쉽지 않은 경우도 많다. 잎꽃이나 꺾꽂이 등으로 비교적 번식이 쉬운 편이지만 품종에 따라 관리방법도 차이가 난다. 품종에 따라서 흙가드닝용으로 키우기 쉬운 종류가 있는 반면 습도나 환경 등에 민감해 관리가 까다로운 종류도 있다.

베고니아는 크게 형태에 따른 분류, 원예적 분류, 원예이용상의 분류로 나누고 있다. 이 중에서 주로 원예이용상의 분류를 활용하는데, 꽃베고니아(Flower Begonia), 관엽베고니아(Ornamental Begonia), 목본성베고니아(Erect Stemed Begonia)가 이에 속한다. 꽃베고니아는 초본성으로 꽃을 관상하는 것이 주목적이며, 관엽베고니아는 초본성으로 잎을 위주로 감상하는데 렉스베고니아 종류가 주를 이룬다. 목본성베고니아는 반관목본성으로 꽃과 잎을 함께 보며 실내 건물의 조경용으로도 많이 식재하는 품종이다. 이처럼 베고니아는 각각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맞춤형 관리를 필요로 한다.

### 꽃이 아름다운 오렌지사워베고니아

오렌지사워베고니아는 잎과 함께 늘어지는 꽃이 매력적인 품종이다. 하지만 꽃이 모두 진 후에 물을 많이 주면 자칫 줄기와 잎이 모두 물러질 수 있다. 이때는 오렌지사워베고니아의 손상된 잎을 모두 제거하고 뿌리 쪽을 살펴본다. 1년 이상 키운 경우라면 흙 속에 알뿌리가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 알뿌리가 보이면 상태를 확인하고 며칠간 물을 주지 말고 햇살이 잘 드는 곳에 둔다. 새로운 잎이 다시 올라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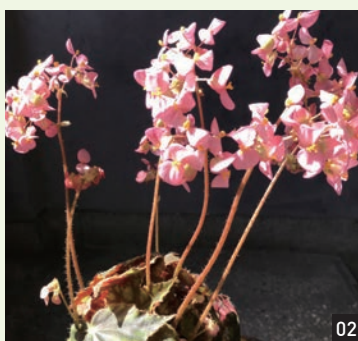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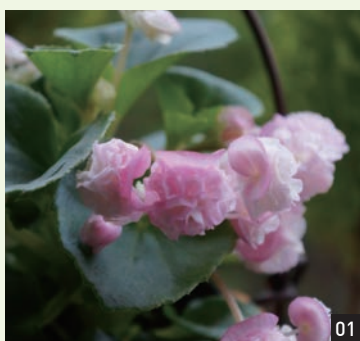


### 허리케인베고니아

큰 잎에 회오리 모양의 무늬가 멋스러운 허리케인베고니아는 잎이 아름다운 품종으로 손꼽힌다. 잎을 위주로 보는 허리케인베고니아는 지나치게 건조하게 키우면 잎끝이 마르고 줄기에 수분이 빠지면서 손상이 올 수가 있다. 많이들 겪는 증상인데 잎베고니아 종류는 주로 작은 화분에 심다 보니 물이 부족해 줄기 손상이 올 때가 많기 때문이다. 손상이 왔을 시에는 마른 줄기를 모두 제거하고 흙에 물을 흠뻑 주면 며칠 후 기존의 잎이 건강해지고 새로운 잎도 생긴다. 만약 모든 줄기가 건조로 인해서 손상이 되었다면 뿌리 맨 위쪽의 잎을 바짝 잘라 준다. 🌱



### 기타 다양한 베고니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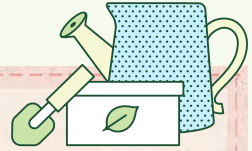
01 팝콘 같은 형태의 꽃이 개성적인 **팝콘베고니아**

02 햇빛 좋은 곳에서 물만 충분하면 쉽게 키울 수 있는 품종이며, 봄이면 풍성하게 꽃이 피어나는 **아이래시베고니아**

03 목본성베고니아 품종으로 수형과 함께 꽃을 감상할 수 있는 **목베고니아**

04 두툼한 잎의 은빛과 잎맥이 매력 있는 **은엽베고니아**





## 베고니아 관리방법

**빛** \_ 강한 햇빛을 피해 밝은 곳에서 관리한다. 특히 온도가 높은 때 강한 햇빛에 장시간 직접적으로 노출 되면 잎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 떨어지는 등 손상이 올 수 있다.

**물** \_ 품종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건조보다는 과습을 조심해야 한다. 표면의 흙이 바짝 마르면 그때 물을 흠뻑 준다. 겨울철이라면 더욱 과습이 되지 않도록 하며, 더운 계절이라면 흙이 마르는 속도가 빠르므로 자주 살펴봐야 한다.

**온도** \_ 한겨울 추위를 조심해야 하는 식물이다. 겨울철 야외월동이 어려우므로 베란다 등의 실내에서 관리한다.

**흙** \_ 일반 분갈이용흙을 사용한다. 마사를 많이 섞으면 물빠짐이 지나치게 빠르기 때문에 소량만 사용해서 물빠짐을 조절한다.

**화분** \_ 베고니아의 부피와 크기를 고려해 적당한 것으로 선택한다. 너무 큰 사이즈를 이용하면 물을 준 후 수분이 마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과습이 올 수가 있고, 반대로 너무 작은 경우는 건조나 영양부족이 올 수 있다.

**번식** \_ 베고니아 잎을 잘라서 자른 부분을 수태로 감싸고 투명 용기 등에 담아 뿌리가 나도록 관리한다. 물을 많이 줄 필요는 없지만 공중습도를 높여주면 뿌리가 나고 새잎이 올라와 자라는 데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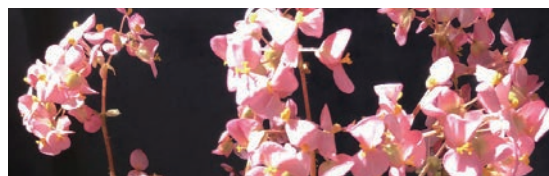
## 흙의 여러 가지 종류 알기

- **원예용 배양토** 식물을 재배하기 위해 여러 가지 토양을 알맞게 혼합한 흙으로 배수와 통기성, 유용한 영양성분이 골고루 배합되어 있다.
- **마사** 주로 다육식물이나 선인장 등에 많이 사용되며, 물빠짐이 좋은 흙을 사용해야 하는 식물에도 다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가는 세립, 보통 정도의 중립, 미세흙을 세척 후 건조한 세척마사 등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 **난석** 화산석을 선별한 가벼운 경량토로, 난과 식물의 분갈이, 배수용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 **바크** 소나무나 잣나무 등의 껍질을 잘게 분쇄한 조각이다. 건조가 된 후에는 수분 흡수가 더딘 특성이 있다. 양난류의 상토로 이용하거나 관엽식물 상토에 섞어 사용한다. 바크 등 우드칩 종류는 미생물 번식도 활발하고 유기물을 공급하는 역할도 한다.
- **화산석** 구멍이 많아 배수성이 좋고 모양에 따라서 장식 효과도 있어 크기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 **하이드로볼** 점토와 물을 혼합해 1,000°C 이상의 고온에서 구워낸 인공토이다. 식물에 산소 전달이 잘되지만 하이드로볼 자체만으로는 영양분이 적어서 수경재배나 장식 등 보조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Q** 흙은 종류별로 어떤 특성이 있나? 식물을 키울 때 사용해야 하는 흙이 따로 있나? 야외의 밭이나 정원의 흙을 써도 괜찮을까?

**A** 흙은 식물에 필요한 수분은 물론 영양분의 공급처이며 식물체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흙은 일반적으로 수분 25%, 공기 25%, 고형물 50%의 비율일 때 식물이 가장 잘 자란다. 원예용 식물은 대부분 전용흙을 이용해서 키우는 것이 좋다. 전용흙은 기본적으로 배수성과 통기성, 보수성이 좋고 살균처리가 된 제품이다. 일반 꽃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분갈이용흙에는 식물 성장에 필요한 여러 영양 성분과 펄라이트, 건조 후 분쇄된 나뭇가지 등을 포함해 다양한 성분이 들어 있다.

관상용 식물을 키우는 경우 식물에 맞는 전용흙을 구입해 사용해야 한다. 야외의 흙을 별도의 처리 없이 실내 식물을 키우는 데 이용한다면 병충해, 영양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식물을 키우는 데 필요한 흙은 그 종류도 많다. 식물 성장에 맞게 질석, 펄라이트, 액비 등 여러 종류를 섞은 일반 분갈이용흙부터 물빠짐이 좋고 서양난이나 착생 식물에 많이 활용되는 바크까지, 선택의 폭이 넓다.

백태, 자연이끼, 인조이끼 등 여러 종류의 이끼는 바크처럼 착생식물을 키우는 경우는 물론이고 장식 소품에도 쓰인다. 크기가 다른 돌은 물빠짐 좋아야 하는 식물 키우기 외에도 수경재배, 관엽 큰 화분이나 선인장 장식 등 여러 용도로 쓰이므로 필요에 따라 선택해서 쓰면 좋다.

키우는 식물의 종류에 따라 사용하는 흙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일반 분갈이용 흙과 마사 몇 종류가 함께 있으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 **버미큘라이트** 질석을 750℃의 고온으로 가열하며 만든 경량토로 운모가 함유되어 반짝거리는 특징이 있다. 무게가 모래의 1/15 정도로 가볍고 소량의 칼슘과 마그네슘, 칼륨이 함유되어 있으며 살균력이 좋다.
- **펄라이트** 진주암을 1,000℃로 가열하여 만든 백색 입자로 미세구멍이 많고 그만큼 가벼운 경량토이다. 배수성, 보수성, 통기성 등이 좋아 잔뿌리 발생에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비료성분은 물론 큰 영양분이 없어서 단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 **부엽토** 섬유질이 많고 엽육이 두꺼운 낙엽활엽수의 잎을 모아서 부숙한 것으로 식물에 이로운 토양 미생물의 활동이 왕성하다. 단독 용토보다 혼합토의 재료로 이용된다.
- **수태** 고산지대의 습지에서 자라는 물이끼를 건조시킨 것이다. 물주머니가 있어서 수분을 20배 가까이 흡수할 수 있다. 수태는 산성이 강해 잘 썩지 않고 건조되면 가벼워서 다양하게 이용된다. 미생물이 많이 포함되어 토피어나 나 난 종류 등에 상토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주로 압축 형태로 수입·판매된다.
- **코코칩** 코코야자 열매의 껍질을 잘게 잘라 블록으로 압축한 천연섬유질이다. 습도유지 효과도 있어 유용하다. 립살리스 종류에 많이 사용한다.